

제8차 임권의 하프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

• 국어 영역 •

정답

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															
6	3	7	2	8	4	9	2	10	2	11	4	12	3	13	5	14	2	15	4	16	4	17	5	18	4	19	3	20	4	21	5	22	5	23	2	24	4	25	5

해설

1. [출제 의도] 회의 참여자의 발화 의미와 기능 이해하기

② 해당 발화는 학생 1,2,3이 논의한 것을 토대로 정리하는 발화일 뿐. 기사문의 내용구성에 대해 논의의 하며 드러난 쟁점을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
[오답풀이] ① ㉠에서 학생 1은 지난 회의에서 기사를 쓰기로 정했다고 언급하며, 그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 ③ ㉢에서 의문의 형식을 통해 어떤 과정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소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. ④ ㉣에서는 글의 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사문을 과정류 서술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. ⑤ ㉤에서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 3의 발화에 공감하고 있다.

2. [출제 의도] 담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하기

④ [A]에서 학생 2는 학생 3과 학생 1의 제안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, [B]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[오답풀이] ① [A]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을 뿐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 ② [A]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 2의 의견대로 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. ③ [B]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. 학생 2의 의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. ⑤ [A]에서는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을 표제와 부제에 드러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, [B]에서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.

3. [출제 의도] 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

② (나)의 2문단에서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어려움이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생사의 효과를 부각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.

[오답풀이] ① (나)의 부제에는 행사의 취지였던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사가 실시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. ③ (나)의 3문단에서 학생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. ④ (나)의 2문단에서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들은 매일 잔반을 가장 적게 배출한 학생이라고 언급하였다. ⑤ (나)의 1문단에서 메뉴와 계공 날짜를 언급하였다.

4. [출제 의도] 조건을 참고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기

⑤ (가)에서 언급되었던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고려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,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학생 2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다.

5. [출제 의도] 쉬운 변동 현상 이해하기

② ㉡에서 축약은 일어나지 않았으며, ‘ㅎ’이 탈락하고 ‘ㅅ’이 된소리되기만 일어났다.

[오답풀이] ① ㉠에서 받침 ‘ㅎ’과 ‘ㄱ’, ‘ㄷ’, ‘ㅈ’이 결합하여 축약이 일어나 [ㄱ], [ㄷ], [ㅈ]로 발음된다. ③ ㉢에서 ‘놓는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[놓는]으로, 여기에 비음화가 일어나 [논는]으로 발음된다. ‘쌓네’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[쌓네]로, 여기에 비음화가 일어나 [싼네]로 발음된다. ④ ㉣에서 ‘않는’과 ‘때내’는 ‘ㅎ’이 탈락하여 [안는], [만네]로 발음된다. ⑤ ㉤에서 ‘남은’, ‘놓아’는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‘-은’과 ‘-아가 올 때 ‘ㅎ’이 탈락하여 [나은], [노아]로 발음된다. 그리고 ‘쌓이다’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‘-이-’ 앞에서 ‘ㅎ’이 탈락하여 [싸이다]로 발음된다.

6. [출제 의도] 파생어의 특징을 파악하기

③ ‘넙다’는 형용사이고, ‘넙히다’는 동사이므로 품사가 달라지고, ‘(방이) 넙다’에서 ‘(방을) 넙히다’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. ‘팔다’와 ‘팔리다’는 모두 동사이므로 품사가 달라지지 않고, ‘(책을) 팔다’에서 ‘(책이) 팔리다’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.

7. [출제 의도] 띄어쓰기의 규정을 적용하기

② ‘주다’와 ‘값다’가 모두 분동사이므로 ‘주고 값다’로 띄어 써야 한다.

[오답풀이] ① 어미는 어간과 붙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였다. ③ 형용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였다. ④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였다. ⑤ 조사는 앞말과 붙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였다.

[8~12] (인문) 한국철학사상연구회, 「현실을 지배하는 마음 가지 단어」

8. [출제 의도] 핵심 내용 파악하기

④ 2문단에서 톨스는 제 1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하며, 이는 제 2원칙에 우선한다고 했기에 ‘아니요’라고 답변할 것이며, 4문단에서 노력은 공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할 것이 아니라,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역시 ‘아니요’라고 답할 것이다.

9. [출제 의도] 세부 정보 파악하기

② 2문단에서 톨스는 최소 손해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[오답풀이] ① 2문단에서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. ③ 5문단에서 왈치는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, 문화적 소산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있고, 가지마다 속하는 교유의 영역이 있고 각각의 영역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. ④ 1문단에서 정의를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규정하고 있고, 사회 정의를 말한 철학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니 적절하다. ⑤ 4문단에서 노력은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적절하다.

10. [출제 의도]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

② (가)의 사례는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성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. 이러한 사례는 재산이 많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소유물을 양도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.

[오답풀이] ① 톨스는 제2원칙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할 기회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. 만약 기여 입학제가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에 영향을 준다면 기여 입학제는 기회 균등의

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이다. ③ 5문단에서 왈치는 돈은 경제 영역에만 머물러야 하며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적절하다. ④ 2문단에서 톨스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 사회적,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, 사회의 최소 손해자에게만 그 불평등을 해소할 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. 이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에서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모두가 합의하기 때문이다. ⑤ 4문단에서 노력은 자발적인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을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적절하다.

11. [출제 의도] 세부 정보 확인하기

④ 3문단에서 톨스는 모두가 자신과 타인의 사회의 지위, 계층, 능력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을 씌우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서술이다.

12. [출제 의도]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

③ ㉢는 ‘주어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다.’라는 뜻이므로 ‘주장이나 의견 따위를 내놓고 주장하거나 지지하다.’라는 뜻의 ‘내세웠다’가 적절하다.

[오답풀이] ① ‘가늠하다’는 ‘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다.’의 의미이다. ② ‘분석하다’는 ‘복잡한 현상이나 대상 또는 개념을,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다.’의 의미이다. ④ ‘체공하다’는 ‘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치다.’의 의미이다. ⑤ ‘살펴보다’는 ‘자세히 따져서 생각하다.’의 의미이다.

[13~16] (교전소설) 작자 미상, 「홍부전」

13. [출제 의도] 작품용 종합적으로 이해하기

⑤ 위 글은 사건을 정황하게 서술하는 만연체의 서술을 하고 있다. 이를 통해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.

[오답풀이] ① 초반부에 홍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있음을 알 수 있다. ② 홍부가 놀부의 집에 건너갈 때, 놀부가 쌀을 줄 것을 거절할 때 운운감이 느껴지는 어투가 서술됨을 알 수 있다. ③ 밖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초현실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. ④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평민계층의 언어를, 한자성어나 고사를 말하는 것에서 양반 계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

14. [출제 의도] 등장 인물들 간의 태도 확인하기

② 계보는 ‘네 킷소리에 보화가 변화였는가 싶으니’라는 놀부의 책망에 기만히 있다가 그 후에 탄 밖에서 시주승이 등장하니 놀부를 비웃는다. 이를 통해 놀부의 책망에 대해 계보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진술은 잘못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.

[오답풀이] ① 놀부는 밖을 타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‘좀스러운 계집년이 무슨 일을 아는 체 하여 방정맞게 날뛰는가’라고 하며 남편이비적인 사고로 놀부의 처를 꾸짖고 있다. ③ 홍부는 옛일을 생각하여 자신과 처자식을 살려달라고 놀부에게 빌고 있으며 형제간의 우애를 내세워놀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④ 놀부는 홍부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하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. ⑤ 홍부는 놀부집에 가서 쌀을 얻어오라는 아내의 말에 매를 맞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15. [출제 의도] 장면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한자성어에 적용하기

④ ㉢는 놀부가 자신의 동생인 홍부를 박대하는 장면이고, ㉤는 놀부에게 초라니가 달려들어 공격당하는 장면이다.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앞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

해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(因果應報)라는 한자 성어로 정리할 수 있다.

16. [출제 의도] 구절 속에 담긴 시대상 추리하기

④ @은 흥부가 자신을 박대하는 놀부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구절이다. 이로 인해 형제간의 우애가 깊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나, 그로 인해 경로사상(敬老思想)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.

[오답풀이] ① ㉠은 청명보다는 처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 형의 집으로 가라는 발화는 명분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라는 뜻이므로 적절하다. ② ㉡은 흥부의 외양으로 평장히 가난한 상태를 알 수 있다. 따라서 기존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며, 몰락한 양반이 생겼다는 서술은 적절하다. ③ ㉢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흥부에게 줄 돈은 없다는 놀부의 발화로 돈과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태도가 널리 퍼져있다는 추리는 적절하다. ⑤ ㉤은 놀부가 돈을 주고 제보에게 일을 시키는 것으로 계약적 고용 관계를 토대로 하는 임금 노동자가 있다는 서술을 적절하다.

[17~20] (기술) 경용태, 「PID 제어 기술」

17. [출제 의도] 글의 세부적 내용을 이해한다.

⑤ 2문단에 따르면 목적에 따라 P 제어가 단독으로 활용되기도 하고, P 제어와 I 제어가 같이 쓰이는 PI 제어, P 제어가 D 제어와 같이 쓰이는 PD 제어가 활용되기도 한다.

[오답풀이] ① 5문단에 따르면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용을 출력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 ② 1문단에 따르면 헌팅현상은 설정값을 기준으로 수온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므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못하다. ③ PI제어에서 조작용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하는 조작용을 출력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 ④ 1문단에 따르면 on/off 스위치 방식이 활용된 온도 조절 장치로 물을 데울 때, 조작용은 온도이다.

18. [출제 의도] 글의 세부적 내용을 이해한다.

④ P 제어에서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 상태가 되는 때는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한 상태이므로, 스위치는 on과 off가 반복된다.

[오답풀이] ① 원하는 온도는 설정값이고 측정값은 현재온도이므로 적절하다. ② 스위치가 켜진 상태는 조작용이 100%이고, 스위치가 꺼진 상태는 조작용이 0%인 상태이므로 적절하다. ③ 비례대 하한선의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100%인 상태가, 비례대 하한선보다 높아져서 비례주기를 갖게되면 50%의 조작용이 출력되므로 적절하다. ⑤ 비례대가 넓게 설정되면 비례대 하한선이 낮아지므로 비례 주기가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.

19. [출제 의도]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.

③ 3문단에 따르면 증기압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, 비례대를 좁게 하더라도 진류편차는 작아질 뿐 사라지지 않는다.

[오답풀이] ① 1문단에 따르면 온도 조절 장치에 on/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on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어느 순간 설정값보다 수온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다. ② 5문단에 따르면 제어 대상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때 측정값이 설정값으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린다. 이때, D제어를 활용하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. ④ 1문단에 따르면 물리량의 변화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적인 속성을 띠는 경우에 스위치를 off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급세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. ⑤ 3문단에 따르면 P제어 방식을 사용하면 on/off방식만 사용했을 때보다 헌팅이 크게 줄어든다.

20. [출제 의도] 핵심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.

④ 5문단에 따르면 [C]에서 PID 제어를 할 때,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약해져 측정값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

작이 약해져 측정값이 설정값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진다.

[오답풀이] ① 비례대가 400~600rpm일 때의 잔류편차가 50이므로 비례대가 430~570rpm으로 줄어들면 잔류편차는 50보다 작아질 것이다. ② 4문단에 따르면 적분시간을 짧게 하면 잔류편차를 빠른 시간에 없앨 수 있는 대신 헌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. ③ 4문단에 따르면 적분시간을 길게 하면 잔류편차를 없애는데 긴 시간이 걸린다. 따라서 300rpm에서 500rpm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. ⑤ 5문단에 따르면 미분시간이 길어지면 오버슈트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절하지 못하다.

[21~25] (고전시가) 안민영, 「메화사」, 경약용, 「보리타작」, (수필) 김훈, 「자전거 여행」

21. [출제 의도] 세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공통된 태도 파악하기

⑤ (가)에서는 단아하고 아름답고 굳센 메화라는 대상에서, (나)에서는 보리타작하는 농부의 노동을 통해, (다)에서는 대나무의 모습에서 그것의 긍정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22. [출제 의도]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

⑤ 상승의 이미지는 (가)와 (다)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다.

[오답풀이] ① (가)에서는 메화에게 화자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 ② 철쭉과 두견화를 메화에 대비하며 메화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 ③ (다)는 짧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으며, '봄의 대숲은 연두색이다'와 같은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. ④ (가)는 메화의 특성을, (다)는 대나무의 특성을 부각시켜 인간의 삶과 연관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23. [출제 의도]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

② (나)의 낙원은 시골에서 농부들이 노동을 하는 공간을 이으며, 이는 세속적 가치인 벼슬과는 동떨어진 공간이다. (다)의 낙원은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. 따라서 두 공간의 의미는 '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'이다.

24. [출제 의도]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기

④ (나)와 <보기>의 '벼슬길과' '나너만 일'은 모두 세속적 가치로서 화자가 지양하는 가치이다.

[오답풀이] ① (나)의 보리밭과 <보기>의 보리밭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만족하며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. ② (나)의 '마당'은 보리타작을 하는 노동의 공간이고, <보기>의 '물가'는 화자가 풍류를 즐기며 노는 공간이다. ③ (나)의 '노랫가락'은 보리타작을 하며 부르는 노동요이므로 흥겨움을 느낄 수 있고, <보기>의 '노니노라'에서는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는 모습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. ⑤ (나)의 '해매고 있으리오'와 <보기>의 '부러워 할 줄이 이시라'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였지만 평서문으로 전환하면 화자의 생각을 알 수 있으므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

25. [출제 의도]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

⑤ 눈은 메화에 시련을 주는 대상으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로 보기 어렵다.

[오답풀이] ① '어리고 성긴 가지'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의 메화를 뜻한다. ② '암향초자 부동터라'는 메화의 향기가 떠다니는 듯 하다는 뜻으로 후각의 시각화로 볼 수 있다. ③ '빙자옥질'은 여인을 얼음과 구슬에 비유한 것으로 메화를 사람처럼 보아 인격을 부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. ④ '봄뜻'은 빼앗길 수 없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이다.